

관세폭탄에 내수위기까지... 선장 잃은 한국 경제 ‘비상사태’

정부, 尹 파면으로 대선 전까지 두달간 리더십 공백
트럼프發 관세 위협↑... “수출·성장에 심대한 타격”
내수 부진에 질어지는 ‘R의 공포’... 산불 등 악재도
경제팀 수장 “원팀으로 안정적 경제 관리에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대선 전까지 60일 간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중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정부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세지는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 등 복합적 위기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는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선장을 잃은 대한민국(號)는 대선 전까지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전 부처가 경기 침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發 관세전쟁 현실화... “수출·성장에 심대한 타격”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대선 전 두 달 동안 ‘리더십 공백’을 겪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외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황포’가 예상보다도 더 세계 한국을 강타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에 이르는 주먹구구식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25% 관세율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24%)보다도 높다.

상호관세가 이대로 적용될 경우 수출과 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 상호관세(Sharper than expected US reciprocal tariff)’라는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미국 글로벌 상호관세가 발표됐다”며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연간 최소 -0.375%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계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출액 감소 전망이다.

◆내수 부진에 질어지는 ‘R의 공포’... 산불 등 악재까지 겹쳐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이 투하되는 사이, 내부에선 ‘경기 침체’ 위기가 도배처럼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경제는 부진의 뿔을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모두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건설업계 곳곳에선 경영 위기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이어졌다.

원화 가치 급락으로 원·달러는 1470원대를 뚫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오름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심화됐다.

먹거리, 주거, 교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조짐마저 보이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7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산불·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해마저 우리나라 곳곳을 할퀴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리더십 공백으로 실물경기를 반전할 만한 뚜렷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담보 상태에 빠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에 리더를 잃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엔 한계가 있는 건 맞는다”고 말했다.

◆경제팀 수장 “두달간 원팀으로 안정적 경제 관리에 총력”

경제 위기에 국가 총수 부재 상황까지 맞게 된 우리 경제팀은 새 정부 출범을 앞



두고 관세 협상과 경제정책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을 한 꺼풀 벗겨낸 만큼, 정부는 한 팀으로 뭉쳐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현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 노력을 집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이달 내에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큰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주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띄운다
기업·대학·인증기관·지원기관 등 9개 기업·기관 업무협약
특화단지 조성·인재 양성협력... 기술개발·실증·양산 체계화
산업육성전략포럼서 모빌리티시스템·생태계 구축방안 모색

광주시가 미래 신산업이자 신교통혁명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 AAM) 산업을 본격적으로 띄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 포럼’ 개최와 함께 미래항공모빌리티 기업과 대학, 시험·인증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9개 기업·기관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베셀에어로스페이스㈜ ▲쥘프로모빌리티 ▲쥘디에어 ▲지에프텍㈜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우주항공연구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이 9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기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시험·평가 및 실증, 양산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특히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AI), 미래차, 미래항공교통 산업이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산업 진출로 광주경제 그릇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에 더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발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완공된 UAM(도



심항공모빌리티)실증진흥센터를 거점으로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집적화해 핵심기술 개발, 기반시설 확장, 부품기업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전환) 등을 지원하는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 포럼’도 개최됐다. 광주시와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김명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모빌리티연구팀장이 도심항공교통 새로운 개념 정의와 시범운영 구역, 추진기반 마련 등 ‘도심항공교통법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 고동희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 차장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체계적 관리 및 단계적 준비’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도는 해양수산부의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고흥군과 신안군이 선정돼 사업비 3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어촌지역에 양식장과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여인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창업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고흥만 간척지와 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의 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성이 좋아 귀여인이 가장 선호하는 새우를 주력 양식 품

전남도, 청년 창업 위해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해수부 공모사업 2곳 선정돼 사업비 350억원 확보
고흥 첨단친환경 양식단지·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목으로 정하는 등 공모 취지와 평가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선정된 2곳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고흥군은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수축산 벨리와 연계해 200억 원 규모의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신안군은 15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등 기존 양식 기반 시설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임대형 양식단지를 2027년까지 신속히 건립해 청년에게 보급하고, 청년·귀여인을 위한 임대형 해상 양식장을 계속 확보하며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벤처수산업도 함께 육성할 방침이다.

전장우 친환경경수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양식업 창업을 바라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식단지에 입주하는 청년이 사업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전남도-농협경제지주, 전남산 대파 할인

전라남도도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전남산 대파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행사는 9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농협경제지주에서 대파 공급 가격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는 기존보다 20~40%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구매할 수 있다.

대파 1단(1kg)의 할인 전 가격은 2천980원으로, 행사를 통해 1천7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지원물량 소진에 따라

행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대파는 대표적인 향신료로 칼륨과 칼슘, 인이 풍부해 육류를 섭취할 때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고,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

유덕구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해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